



동해해수청, 동해안 거진등대 등명기 기능 개선 추진

동해지방해양수산청(청장 이재영)은 4월 16일(화), 고성군 최북단에서 최초로 점등한 거진등대의 노후 등명기*를 최신형으로 교체하였다고 밝혔다.

* 등명기(燈明機, Marine Lanterns) : 전구에서 나오는 빛을 렌즈 또는 거울을 이용하여 멀리까지 내보내는 조명기구

거진등대가 홍백색 호광등*으로 어로한계선을 표시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어로한계선이 북측으로 상향 조정(12년도) 됨에 따라 동해해수청은 연안 표지 역할을 하는 백색등으로 등명기를 교체한다.

또한 신형 LED 등명기를 교체함으로써 등대 기능강화, 거진항 일대 선박의 야간 항해 지원, 안전사고 예방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호광등(互光燈, alternating light) : 다른색을 연속적으로 번갈아 나타 내는 등명기

참고로 이번에 교체되는 LED 중형 등명기는 고광도의 빛을 먼 거리까지 보낼 수 있고, 기존의 전구형 등명기에 비해 광력과 내구성이 우수하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항로표지 기능 강화를 통해 연안 해역을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지역 어민들의 안전뿐만 아니라 안전한 해상교통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과	책임자	과 장	김동식 (033-520-6271)
		담당자	주무관	김형건 (033-520-6274)



참고

거진등대 사진



거진등대 전경



거진등대 LED 등명기